

영화관에서 세계적 공연 감상 ...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2014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현재 상영중인 슈트라우스 오페라 '카프리치오'.

현장에 있는 듯 생생합니다

메가박스 광주점, 매주 화·토 공연 실황 생중계 ... 발레·오페라 상영

탄생 150주년 슈트라우스 오페라 '카프리치오' 상영중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돈 지오반니' 생중계 예정 관람료 인하 추진·회원 모집·클래식 동호회 이벤트도

며칠 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극제 극장에서 공연된 베르디의 '돈 카를로'를 감상했다.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점에서였다. 타이틀롤을 맡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엘리자베타 역의 안야 하르테로스는 노래 뿐 아니라 연기면에서도 압도적이었다. 간결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무대 디자인과 연출도 흥미로웠다. 커다란 화면과 뛰어난 음향시설, 가수의 표정부터 무대 곳곳을 잡는 카메라를 덕에 생생한 현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잘 번역된 한글 자막도 감상에 큰 도움이 됐다.

영화관 멀티플렉스 체인 메가박스는 '메가박스 올 댓 클래식(All that Classic)' 브랜드를 론칭, 페스티벌과 오페라, 발레 등 클래식 작품을 상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광주와 대구, 부산, 대전 등 4곳에서도 관람이 가능해졌다. 메가박스 광주점은 144석 규모로 위성 중계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광주점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은 라이브 공연과 콘서트(발레·오페라) 공연으로 나뉜다. 라이브 공연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첫 작품은 지난해 1월 1일 열린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2013'이었다. 이후 올해 1월 1일 열린 빈필의 신년음악회와 베를린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는 좌석 점유율 94.9%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지금까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중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베르디의 '팔스타프' 등 모두 11편이 상영됐다. 평균 점유율은 60% 수준으로 지금까지 1000여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8월 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콘서트 공연(발레·오페라)도 시작했다. 지금까지 '라 트라비아타',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고집쟁이 딸', '랑랑 콘서트' 등 모두 11편이 69회 상영됐다.

현재 상영작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카프리치오'로 세계적인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올해 대가작 가운데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8월 2일 개봉 예정인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마술피리'는 기대작중 하나로 보덴호수 수상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하이라이트는 라이브로 진행되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로 '돈 지오반니'(4일), '일트로바토레'(15일), '장미의 기사'(19일)를 만날 수 있다.

또 라이프치히 발레단의 '찰리 채플린', 사이먼 래플 지휘로 브람스 '교향곡 1번' 등을 만나는 베를린 필 발레투네 야외콘서트,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 참가작인

'윌리엄 텔', 베를린 슈타츠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등이 대기중이다.

유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오페라, 콘서트, 발레 등을 감상할 기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영상으로나마 세계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역 클래식 애호가층이 넓지 않다보니 아직은 관객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라이브 공연에 비해 일반 오페라와 발레 공연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호응이 미미한 수준이다. 관람료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현재 라이브 공연과 오페라는 3만원, 발레와 콘서트는 2만원을 받고 있다. 다행히 메가박스 본사에서 8월부터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점은 '메가박스 클래식'을 지역 클래식 문화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클래식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자체 회원도 모집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주점 공영주 접장은 "지방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서울에 비해 관객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대구 등 타 지역보다는 관객들의 호응이 높은 편"이라며 "관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상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라고 말했다.

작곡가 김승일씨는 "광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오페라 작품들을 보면서 연기와 연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며 "좀 더 많은 이들이 클래식 프로그램을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휴가철 읽기 좋은 책' 국립중앙도서관 80종 선정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종을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이들 추천 도서는 문학, 역사·철학, 예술·문화, 사회·경제, 과학, 자기계발과 같은 분야로 나누었다.

이에는 대가 반열에 오른 작가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작가란 무엇인가'(파리 리뷰)를 필두로 유럽의 역동적인 1913년을 묘사한 '1913년 세기의 여름'(플로리안 일리스), 이순신의 정신세계를 엿보게끔 하는 '진심진력'(박종평)이 포함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nl.go.kr>)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참조. /연합뉴스

보고싶다 친구야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11일 '우정의 노래'

학창시절, 함께 눈부신 미래를 꿈꾸었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한달에 한번(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모여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회장 황선욱)가 오래전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마련했다. 1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8층 티브라운.

'우정의 노래'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정지근 시인의 시에 신귀복과 이안삼이 곡을 부친 '그리워라 친구여'와 '그리운 친구여'를 함께 배우며 특별 연주자로 김희숙씨가 '옛친구'를, 박현씨가 '그리운 친구여'를 선사한다.

초청성악가는 메조소프라노 신은정씨로 김연준 곡 '비가', 김동진 곡 '신 아리랑'을 들려준다.

회원 연주로는 올해 74세인 유덕희씨가 '오라'를, 김희숙씨가 '동심초'를 선사하며 심옥효·정재숙씨가 '그대는 그날'을 부른다.

그밖에 '산바람 강바람', '바닷가에서', '아무도 모르고' 등 동요와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마련한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8월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무가 LED를 만났을때...

광주 롯데갤러리, 김진화 초대전 ... 16일까지

플라스틱과 목재의 느낌을 동시에 주는 포맥스와 아크릴 물감, LED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몽환적이다. 특히 나무와 극락조 뒤로 반짝이는 LED 불빛은 초현실적인 느낌을 선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작가 특유의 공간 연출 능력이 힘찬 나무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설치와 입체, 평면 회화를 결합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진화씨가 광주 롯데갤러리의 초대로 오는 16일까지 '나무의 미학(The Aesthetic of the Tree)'을 주제로 열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문명 안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삶의 원형 찾기와 그 궁극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여러 장의 평면 이미지를 레이어 형태로 이어 붙인 3차원적 공간 구성으로 주제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돋보이는 전시다. 중첩된 이미지 사이에 LED 조명은 작품의 몽환적인 느낌을 배가시킨다.

김씨는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6회 광주미술상, 제1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백양나무의 하루'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상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 1899-0240